

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피해자 보호계획 마련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앞장

전담 책임관 지정·피해자 회복 지원·사이버교육과정 개설·소통문화 확산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마련, 모든 소속기관 및 각종 학교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추진체계 구축·피해자 보호·교육 강화·인식 개선 등 4개 전략 9개 세부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소통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홍보 등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예

방·대응 업무 전담 책임관을 구성하고, 신고 지원 센터(전북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갑질행위 신고)를 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에도 철저를 기한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기관장에게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이어 예방 교육도 활성화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안내 및 전담책임관을 통한 자체 교육으로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열 감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화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18일 본관 124호에서 2023년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북, 지속가능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전주대,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공동 협약
지난 한달동안 14건 의제 선정... 내달부터 실행 옮겨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18일 본관 124호에서 2023년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lab)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민·관·공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확산해 나가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전북지역

문제해결플랫폼과 2023년 도민 의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의제 실행팀 간 공동 협약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전라북도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과 이를 도내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자리였다.

한동승 센터장은 "이번 공동협약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짐과 결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의제 실행

주체들이 제대로 의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세부 실행 계획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공모해 접수된 총 237개의 제안 중 지역성, 시의성, 공공성, 창의성, 해결 가능성, 주민 체감성, 자원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14건의 최종 실행 의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의제들은 계획을 고도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행에 옮긴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기능경진대회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는 2023 대한민국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기능경진대회에서 16명 전원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계후관리 김예린 학생이 1위로, 국제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장상을 받았다. 또한, 시나현 최지우, 오유나 최효빈 강현영 학생은 국제시데스코 한국지부회장상을, 그리고 양민고 해립 최유경, 시나현이 중앙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과 협약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청소년지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날 체육관 강인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최은아 사법대학장과 조현철 체육학과장, 박신애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법대학과 체육학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287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및 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 내 아동의 학습 정서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지도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계정서 지능이동(노린 학습자) 지원 △교육활동 협의 및 실무교류 △각종 문화예술 나눔 활



동 기획 및 공동 참여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은아 사법대학장은 "지역의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애 단장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협력을 보내준 우석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원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가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글로벌30 유치 위한 혁신, 지역 상생과 밀접"

양오봉 전북대 총장, JB 미래포럼 특강서 "지역 발전 이끌 주체들 간 협력체계 구축을"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18일 서울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JB 미래포럼 조찬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전북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JB 미래포럼은 전북 출신 강소기업과 사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국내 주요 석학들을 초청해 전북지역 발전을 논의하

는 조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양 총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전북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전북대의 역할을 초청해 전북지역 발전을 논의하

는 조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양 총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전북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전북대의 역할을 초청해 전북지역 발전을 논의하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18일 서울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JB 미래포럼 조찬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전북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또한 '과거대학이나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유사 교과목을 통합 운영해 학생들이 전공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제 간 집단 연구도 활성화할 수 있어 세계 100위권 학문 분야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총장은 "글로벌30 사업 유치를 위한 전북대의 담대한 변화와 혁신은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전북대가 뼈를 깎는 개혁을 기반으로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 나아가고, 더불어 글로벌30 사업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고교생에 진로탐색·학과 선택 기회 제공

전북대, 오늘까지 '고교생 초청 진로진학박람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 고교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학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8~19일 이틀간 진수당과 학습문화관 등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고교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두 4,500여 명이 참여한다.

대학에서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84개 학과가 각각 부스를 설치해 각 학과와 전공에 대한 특성과 진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입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입학사

정관이 직접 2024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한 내밀한 상담도 이뤄진다.

주호중 입학처장은 "전북대는 고교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하는 입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고교생 초청 진로진학박람회를 열고 있다"며 "고교생들이 직접 학과 부스에서 자신에 맞는 전공을 알아보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초등학교사 기초영어수업 역량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유합검출에서 초등학교사 기초영어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기초영어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연수는 알파벳 파닉스 집중학습법인 비버부 임글리시(급별초·양지해 교사)와 인공지능기반 영어말하기 연습시스템인 'AI 토크(행안초 서한웅 교사)'를 활용한 현장 교사의 사례나눔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 교원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활용해 토크·비버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외국인 학생 대상 취업마스터 프로그램 진행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8일 외국인 학생 대상 3-STEP 취업마스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과 전공에 맞춰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전략 수립·지원을 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체계적 구직스킬 강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한 글로벌산업인재대&기술과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전략에 맞춘 집중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입학지원서 특강 및 실전 작성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한 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후속지원 컨설팅도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도교육청, 오늘·22일 워크숍... 학교교육과정 다양화 필요성 강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과 22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세미나실에서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필수 운영 과제 중 하나인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요성과, 정규 수업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을 전주·익산·군산·완주 권역과 정읍을 위해 9개 시·군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일별로 오전에는 각 권역의 일반고등학교교장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에는 각 권역의 일반고등학교교장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규 수업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운영 유망과 사례를 안내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다양화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정규 수업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활성화와 내실 있는 단위학교 지원을 위해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교육청과 학교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성인학습자 대상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실시

전주기전대학 치위생과는 지난 17일 교내 성인학습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구강보건교육자 전공 교과목 수업의 일환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약 6시간의 구강보건교육학 문제해결학습(PBL) 과정을 진행, 치주 질환과 만성질환과의 연관성, 치과 보철물 및 임플란트 관리, 구강건강증진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구강보건교육 및 실습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치위생과는 취업과 실무에 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치과위생사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매년 100%에 가까운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합격률과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